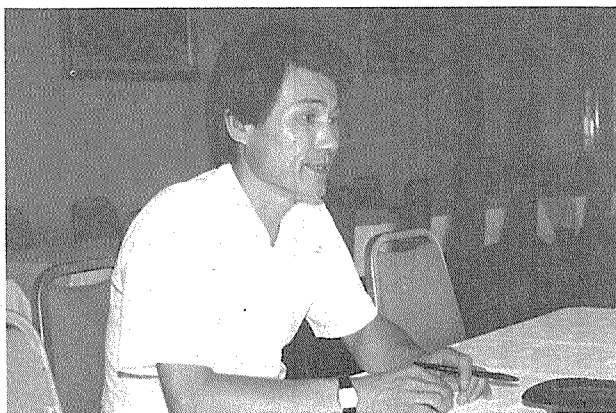


# “학생의 보건의식수준 향상이

서울시 교육위원회



◀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 교사 모두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姜光雄씨.

학교보건에 남다른 뜻을 가진 姜光雄씨.

'76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입사하기 전 병원에서 근무할 때부터 그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하고 고심했었다고 한다. 그 결실이 지금 이자리에 그를 있게 했는지도 모른다.

『학생이나 교사의 건강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보건위생을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을 스스로가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 개선의 주체가 바로 일선 양호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그는 보건의식의 정착화를 강조한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양호교사로 하여금 올해부터 주 6시간씩 보건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양호교사들의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구요』라면서 그는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이 교과과정에 보건교육과정을 삽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이곳에서 맡고 있는 일은 학생·교사의 건강관리, 각종 검사, 전염병 관리

## 곧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이다”

보건기사 姜光雄씨

등 학교보건업무 전반에 관한 것이다. 그런 만큼 그가 학교건강관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특히 아동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요즈음 들어 식생활이 개선되면서 학생들의 비만과 같은 질병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을 그대로 두면 성장한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동들에 대한 정기건강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외에 올바른 방향으로의 성장·발육에 도움을 줄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또 『환경문제도 중요합니다. 책상, 걸상, 밝기 등 학생건강관리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라면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보건예산 책정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항상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그는 『모든 일은 알면 알수록

배워야 할 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주위에서는 그를 이렇게 평한다. 되도록 가족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의 성실성은 아무도 쫓아갈 수 없을 거라고.

아들만 둘을 두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그는 『학교보건교육은 학생, 교사 모두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관계 전문가 육성과 함께 그 전문가들이 보건업무에 관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면서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바로 국가발전의 초석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항상 따뜻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않는 강광웅씨의 밝은 미소. 그것은 이땅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그 무엇이였다. (이 은희 글)